

경유, 6월 둘째주 최고치 갱신할 듯

정유기업, 싱가포르 석유제품 거래가격 따라 산정 ... 원유가격 반영 시차

고유가 때문에 2008년 여름 석유 소비량이 줄어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 원유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정작 휘발유와 경유가격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속을 태우고 있다.

특히,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정유기업들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는데 왜 석유제품 가격을 낮추지 않느냐”는 소비자의 항의에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6월4일 거래된 두바이(Dubai)유 현물은 전날보다 배럴당 3.24달러 내린 118.99달러로 마감됐다.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5월22일 128.97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6월4일 가격은 최고가에 비해 10달러 정도 낮은 것이다.

또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전날보다 배럴당 2.01달러 내린 배럴당 122.3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 5월6일 이후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국제원유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주유소나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휘발유나 경유의 가격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더 올라 소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6월4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대비 0.77원이 오른 리터당 1908.22원, 경유는 0.98원이 오른 1917.92원을 기록했다.

원유가격 하락에 아랑곳없이 휘발유·경유가격이 따로 움직이는 것은 정유기업들이 휘발유·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을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국제 석유제품가격에 맞춰 산정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시장의 석유 제품 가격에 환율과 운송비용,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주유소 공급가격을 결정한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대체로 원유가격에 연동돼 움직이기는 하지만 원유가격이 반영될 때까지 시차가 있는 데다 석유제품 자체의 수급상황에 따라 원유가격과 별개로 움직이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원유가격이 떨어지는 데도 제품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최근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국제가격은 계속 올랐다.

국제 휘발유가격은 배럴당 5월 첫째주 124.57달러, 둘째주 129.48달러, 셋째주 134.99달러 등에 이어 넷째주 135.47달러로 정점에 이른 뒤 6월 첫째주에 135.32달러로 조금 떨어졌다.

국제 경유가격 역시 배럴당 5월 첫째주 149.89달러, 둘째주 162.75달러 등에 이어 셋째주 171.49달러로 꼭지점을 찍은 뒤 넷째주 들어 169.22달러로 하락하며 겨우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보통 국제 석유제품가격이 3주 가량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제품가격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연일 고공비행을 벌이고 있는 국내 경유가격의 경우 국제 경유가격이 최고점에 도달했던 시점이 5월 셋째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6월 둘째주에는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제·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6/09>